



예비군 창설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예비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안보역량입니다. 국민들은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재해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예비군을 보며 애국의 힘을 확인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지원으로 방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군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육성과 발전에 힘써온 예비군 부대 지휘관, 지역과 직장 방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예비군의 내실 있는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해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고, 가상현실 기반 영상 모의사격 등 과학화된 훈련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비군 창설 53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